

청년(금융위 2030 자문단)과 금융권의 대화

모두 발언

2023. 7. 24.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오늘 청년과 금융권이 함께 모여
청년 금융교육 및 자산형성 지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바쁘신 와중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금융위 2030 자문단 여러분 및
금융권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II. 청년과 금융권의 소통 필요성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초로
청년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도 '22.11월 출범한 2030 자문단을 통해
자산형성,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여러 금융정책의 기획, 집행, 환류 단계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금융현장에서도
전체 인구 중 약 20%*, 경제활동인구 중 약 25%**에 이르는
청년들의 선호를 체감하고
금융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 만 19세~34세 인구 1,015만명, 전체 인구의 19.8%('23.6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 만 20세~34세 경제활동인구 687만명,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3.2%

('23.6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오늘 2030 자문단과 금융권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첫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Ⅲ. 청년 자산형성 및 금융교육의 중요성

최근 청년들은
자산격차의 확대, 취업 및 고용 불안정성의 심화,
안정적인 주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원활한 경제적 자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배포되는 사기성 투자정보*나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이
청년 자산형성의 걸림돌로 작용하며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 '21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수사의뢰 건수는 278건으로 '20년(130건)의 약 2.14배(금감원)

** 전세사기 등 수사의뢰 피해 임차인 중 2030 비율 61.3%(경찰청)

청년들이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에만 집중하여
과도한 레버리지, 고위험자산에 편중된 접근을 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분산된 자산운용을 통해
차근차근 자산을 쌓아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이해도 제고를 위한 금융교육과
청년층에 특화된 금융상품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인 e-금융교육센터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 대학생·청년 등의 주된 관심사인 경제·금융 관련 공모전·경진대회, 세미나 등
취업 및 경력개발 관련 행사정보를 모아서 제공하고 맞춤형 검색 추가

중장기에 걸쳐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기여금 지급 등으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와 함께
여러 청년 맞춤형 금융상품을 준비·제공중인 바,

*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 가능,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최대 5년)

이 자리에서 청년에 대한 금융교육과 자산형성이
수요자의 요구에 좀더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금융권이 청년과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IV. 참석자에 대한 당부 말씀

“우리는 한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새로운 변화는
참신한 생각을 지닌 청년들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 “We need men who can dream of things that never were.”(John F. Kennedy)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여러분께서는
청년의 시각에서
정부와 금융권에 제안하고 싶은 사항을
자유롭고 솔직하게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 및 금융권 참석자분들께서는
2030 자문단의 제안이
금융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같은 대화의 장을 통해
청년과 금융권은 물론 사회 전반이 공감할 수 있는
청년금융 발전방향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